

해남군, 여성농어업인 더 건강해야죠 ‘특수건강검진 지원’

여성농어업인 맞춤형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등 특화항목 검진

국·도·군비 90% 지원, 자부담이 10%이지만 군에서 전액 지원해

해남군이 여성농어업인 맞춤형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등 취약 질환 유병률이 높고, 가사와 육아 등 이중 노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특수건강검진이 유용하게 활용된다.

우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에 출생한 51~70세(1955. 1. 1. ~ 1974. 12. 31.) 여성농업인이다. 해남군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특수건강검진 비용은 22만원으로, 국·도·군비 90% 지원에 자부담이 10%

이지만 군에서 자부담 비용까지 전액 지원해 여성농업인들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검진대상자는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5개영역 10개항목이다. 또한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

계질환 항목 예방교육도 받게 된다. 지정 의료기관인 해남종합병원에 예약하고 방문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결과 상담 및 사후 예방교육을 받게 된다.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범사업도 이번달 30일까지 실시되고 있다.

여성어업인은 맨손어업 등에 종사하며 근골격계에 부담이 많이 가는 어작업 질환을 위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된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질환, 골절 위험평가, 심혈관계 질환 등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51세 이상(197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여성어업인이다.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건강검진 비용은 20만원으로 자부담 10%, 2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일반 국가검진에는 없는 특수건강검진으로서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질환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부취재본부

‘홀몸 어르신께 전한 따뜻한 정’ 함평 읍다면, 이웃사랑 나눔 펼쳐



함평군 읍다면이 지역 내 독거 어르신

여성자원봉사회·복지공동체, 독거어르신 위한 ‘행복칼로리UP’ 추진

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에 나섰다.

함평군은 지난달 30일 “읍다면여성자원봉사회(회장 이연옥)가 지난 27일 읍다면 복지공동체와 협력해 관내 독거 어르신 2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식생활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2025년 1인 가구 어르신 행복 칼로리 UP’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자원봉사회 회원 10명과 읍다면장, 복지공동체원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냉장고 청소, 이불 세탁 등 생활 지원과 함께 정성껏 마련한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며 지원 활동을 펼쳤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안부를 확인하며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도 힘썼다.

한편, 읍다면여성자원봉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 밝혔다.

함평=김광춘 기자



동여수노인복지관, 맞춤형 복지서비스 진행

기업과 남편 안도 섬마을 어르신 위한 복지향상 프로그램

동여수노인복지관(관장 이희승)은 지난 달 29일, 여수시 남면 안도와 서고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섬주민 복지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업의 후원으로 더욱 풍성하게 꾸며졌다.

이날 행사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합동 생신잔치를 시작으로, 건강 체크 및 인지서비스, 비누공예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지역 내 약

국에서 제공한 영양제 후원으로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참여한 한 어르신은 “멀리서 와줘서 너무 고맙다. 오랜만에 복직복직하니 좋았다. 이런 날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따뜻한 소감을 전했다.

동여수노인복지관 이희승 관장은 “섬 지역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건강하고 따뜻한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광주 동구, 장애인 열린가게 6곳 추가지정 현판식 진행

노인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장애인이 식당 및 카페를 마음 놓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장애인 열린가게’ 6곳을 대상으로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열린가게’는 보행불편 장애인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가게 내 보행불편이 없고 화장실 등 이용에 장애가 없는 가게를 지정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게를 말한다.

동구는 참여 업소에 대해 ▲‘장애인 열린가게’ 인증 현판 제공 ▲가게 전용 바우처 제공 ▲지자체 공식 채널을 통한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동구는 지난 4월 처음으로 국수나무 계림점, 일품양평해장국(경양로), 벌크커피계림센터점 등 3곳을 장애인 열린가게로 지정했다. 최근에는 카페245(금남로), 이디야그랜드센터점(경양로), 고기안

목, 파리바게트 계림아이파크점, 최애김밥계림아이파크점, 파리바게트 학동삼성점 등 6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이들 가게에 현판을 전달했다.

이번 추가 발굴된 6개소는 조선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동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의 협업 조사를 통해 ▲장애인 접근성 ▲이동 동선 ▲장애인 화장실 유무 등 실질적인 장애인 이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이슬비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숨결이 살아 있는

장성 필암서원

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
산도 절로 물도 절로하니
산수간나도 절로
아마도 절로 삼긴 인생이라
절로절로 늙사오리

— 김인후 선생의 ‘자연가(自然歌)’ —

